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구약성서 의 창조, 땅,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3, 구약에서의 창조, 땅,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새 창조, 그리고 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 창조와 땅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둘 다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창조에서 성취를 찾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적 텍스트에서 그것을 예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백성에게 선물이며,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거주하실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주제는 물리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물리적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축복의 장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 그것은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땅의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순전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물리적 요소와 영적 요소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어쩌면 일종의 부수적인 메모이지만, 창세기 1-2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땅이 무형이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섯 날 동안 창조를 시작하여 이 환경, 즉 그가 그의 백성에게

주는 땅이라는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무형과 공허함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거나 무질서한 것을 취하여 창조적인 행위로 질서를 가져오거나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행위로 무질서를 극복한다는 주제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실제로 나타날 패턴을 설정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창조는 무질서의 장소로 여겨지고, 이제 죄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행위로 극복하실 혼돈의 장소가 되는데, 이는 결국 어떤 예언적 본문과 요한 계시록 22장에서 예상된 새로운 창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 두세요. 우리는 창조에 대해 말하는 내용 측면에서 창세기 1-2장을 살펴보았지만, 저는 몇 가지 구약 본문을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 본문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목록에 관심이 있다면, 신약 신학이나 신약 성경 신학, 신약에서 구약 주제의 발전에 대한 Greg Beals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본문과 그 본문 중 일부에 대한 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되는 주요 텍스트, 특히 죄와 악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도입된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는 창조와 땅, 그리고 새 창조의 모티프나 주제를 발전시킵니다. 첫 번째 중단점은 아마도 창세기 6-9장의 홍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새 창조로 가는 길에(On the Way to a New Creation)라는 제목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에 대한 기록이고 홍수 이후의 전체 이야기, 다시 마른 땅이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위임한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제 생각에,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창조 행위를 모델로 한 새로운 창조 행위가 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특히 홍수 기록에서 창세기 8-9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거의 새로운 창조 행위로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을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17절과 20절에서 우리는 물이 모든 창조물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영이 물 깊은 곳이나 물 창조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과 17-20장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종류의 생물, 즉 새와 짐승,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 땅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꺼내어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땅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방주에서 나왔고, 그런 다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7장입니다. 사십 일 동안 홍수가 땅에 계속 닦쳐왔고, 물이 늘어나면서 방주를 땅 위로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물이 땅 위로 크게 올라갔고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이 땅 위로 크게 올라갔고 땅 아래의 모든 높은 산과 하늘이 덮였습니다.

물이 솟아올라 산을 20피트 이상 깊이 덮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물이 모든 창조물을 덮고 있다는 그림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1-2장에서 영이 물 깊은 곳을 맴도는 것을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8:11-14에서 마른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1장에서 마른 땅이 창조의 셋째 날에 솟아오르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에서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8장은 11절로 시작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저녁에 그에게 돌아왔을 때, 부리에는 갓 탄 올리브 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물이 땅에서 물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며칠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지만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노아의 601년째 되는 해의 첫 달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고, 노아는 방주에서 덮개를 제거하고 땅 표면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는 이 그림과 비둘기가 뜯은 올리브 잎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창조 행위에서 나오는 식물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구를 덮은 물, 마른 땅, 심지어 식물이 나오는 것 외에도, 세 번째는 아담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인데, 이것은 9장에서 노아에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이 이런 종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행위에서 나온 후, 마른 땅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9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고 그 위에서 번성하라. 사실, 같은 명령이 동물에게도 주어졌습니다.

17절: 모든 종류의 생물을 끌어내라. 이것은 8장 17절, 즉 너희에게 속한 새와 짐승과 땅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며 그 위에서 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와 동물에게 주어지고 번성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는 동일한 명령이 이제 노아와 방주에서 나온 동물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한 연결들이 홍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감소이자 창조라고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구 전체를 덮는 물에 의한 감소와 심판이며,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창조를 취소하고 심판한 다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본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생겨난 다음, 창세기 9장에서 노아처럼 아담에게 재위임이 주어지는 새로운 창조 행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9장의 홍수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로 가는 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그의 첫 번째 창조물을 심판하지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일종의 준 새로운 창조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을 폐기하고 단순히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첫 번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홍수 이야기 다음에 멈출 지점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창세기의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저는 창세기 12장의 처음 세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확립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일부이며, 우리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종의 여담이지만, 적어도 첫 번째 주제를 다룰 때는 언급해야 합니다. 이 주제들을 서로 분리해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주제와 접촉하고 병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텍스트 중 일부, 예를 들어 새 창조가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립된 방식으로 이것들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땅의 문제는 언약과 다른 여러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약의 주제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룰 때 이 장을 다시 다룰 것입니다. 창세기의 여기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하지만 12장의 처음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본토와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창조와의 몇 가지 연결에 주목하세요. 창조와 연결될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나중에 씨, 아브라함의 씨 또는 후손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씨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온갖 다른 연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로 부르신 의도가 결국 그를 그 땅으로 데려오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제가 당장 궁금한 것은, 왜 그가 그를 어떤 땅으로 데려갈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는 다른 땅으로 가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 땅을 창조합니다. 그는 그들을 에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동산 성소에 두십니다.

그는 그들을 돌보고 지키며 하나님의 거처로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고 그들은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즐기도록 원래 의도했던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그의 의도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여기의 서사 사이에 수많은 다른 연결고리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아담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못된 것을 여러 수준에서 고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 중 하나는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백성이 즐길 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거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계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종의 갈등 해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소개된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제 우리는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8장과 9장의 홍수 이야기에서 준-창조적 행위에서 예측되고 기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어떤 땅으로 데려오심으로써 그 시작의 해결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땅에 거주하는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땅에서 쫓겨난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할 것이 많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창세기 12장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다시 연결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또 다른 중단 지점, 아주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또 다른 중단 지점은 아마도 출애굽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의 앞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성서에서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문학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을 노예 생활과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출애굽기는 아마도 새로운 창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 구약성서 본문은 출애굽기를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마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Greg Beal은 모든 재앙이 닥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방식과 비슷하게, 그것들은 땅에 대한 심판으로 의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내린 재앙은 땅에 대한 선언이나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해의 주제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퍼지거나 물이 제거되어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 장벽이 되는 것, 무질서한 것이 제거되어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가는 길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에서, 출애굽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 물을 제거하여 사람들이 건너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도 새로운 창조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서사는 창세기 12장과 다른 곳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후 다른 족장들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와 다른 곳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구약성경의 서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확립하신 땅에 대한 은혜로운 공급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로 인해 잃었지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정복으로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후 사람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심으로써 성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처럼,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아담과 이브처럼, 이스라엘은 땅에서 불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로서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러한 주제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언약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면 땅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와 추방과 추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유배 전 또는 유배 예언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읽을 때, 먼저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남방 유다 왕국이 유배되어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신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에서. 이제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유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고, 다시 한 번 창세기 3장에서 본 것과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까요? 어떻게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는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실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 답은 예언 문학과 예언자들에서 발견됩니다. 예언자들은 다른 것들 외에도 계속해서 기대하며, 우리는 예언 문학이 이러한 주제의 여러 가지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한번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데, 둘 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성취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땅을 재창조하려는 의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언적 본문이 어떻게 일치되는지에 대한 예로서 더 명백한 예언적 본문 중 일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지만, 예언적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는 데 어떻게 일치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시작점은, 제 생각에, 본문이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의 본문을 지적할 수 있고,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지적할 수 있고, 유배 후 땅에서 돌아올 것을 예상하는 사실상 모든 예언서의 본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담과 이브의 패턴을 따라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불순종은 유배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예언적 텍스트는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2장의 성취로 땅으로의 귀환을 예상합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 사실 에스겔 37장부터 책의 맨 마지막인 48장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설명하는 에스겔 36장과 37장의 몇 구절에 잠시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 중 일부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2장보다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곳이 필요해서 그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배에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때를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6장에서 17절에서 18절까지를 조금 읽어볼게요. 16절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인자야. 이것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행실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행실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행실은 내 눈에는 여자의 월경 부정과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으니, 그들이 그 땅에 피를 흘렸고, 그들이 우상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흘렸고,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나는 그들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것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요. 그리고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며,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한 약속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 있어서 땅과 언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회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의 백성이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창조하신 은혜로운 땅 또는 지구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유배되었던 민족들로부터 이끌어 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들에 있는 땅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한 왕이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며 왕국으로 나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우상과 흉악한 형상이나 다른 어떤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을 모든 죄악적인 배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깨끗이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서 그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주제의 발전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를 성취하여 그의 백성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제가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읽은 두 구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족장들과 아브라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몇 가지 언급도 있는데, 이는 땅으로의 귀환이 에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로의 귀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 36장으로 돌아가서 3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회복하신 맥락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을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불친절함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 풍부하게 하며, 너희에게 기근을 가져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출을 증가시켜서 너희가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열국 가운데서 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라.

과일과 작물을 늘리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이제, 그것은 축복과 풍요로움의 일반적인 주제일 수 있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은 그것이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부부는 에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 황무한 땅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 황무하게 있는 대신 경작될 것이다. 그들은 황무해진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폐허가 되어 황폐하고 파괴된 도시들은 이제 요새화되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 땅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은유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순한 은유 이상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목적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36장과 11절은 제 생각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암시입니다. 사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9절. 저는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호의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너는 쟁기질되고 뿌려질 것이다. 나는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곧 이스라엘의 온 집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성읍들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폐허는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더하여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옛날과 같이 너희 위에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너희를 전보다 더 번영하게 할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모두 땅에서 번성하고 증가하거나 번성한다는 언어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의도로 분명히 언급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 특히 36장과 37장은 다른 본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스겔서의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아 유배에서 회복시키고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성경적 신학적 연결, 창세기 12장의 성취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땅으로의 귀환이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의 첫 번째 창조 행위에 표현된 그의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은 효과가 없었던 A 계획이었습니다. B 계획을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에 대한 그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두 가지, 선지자 이사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도 우리는 이사야의 여러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를 거듭거듭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40장은 사실 잘 알려진 장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여, 그녀의 봉사가 끝났다고 선포하라. 3절, 사막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니,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되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험준한 곳이 평탄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행위로 사람들을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의도를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은 현재 유배 중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묘사하거나 예상하기 시작하면서, 60장,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떠오른다.

이제 여러분은 알아차리실 겁니다. 적어도 영어 번역에서는 땅이나 에덴이라는 단어나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땅으로 회복된다는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너에게 떠오른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사람들을 덮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네 위에 일어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왕들이 네 새벽의 밝음으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네 주위를 둘러보라. 모두 모여서 네게로 오라.

네 아들들은 멀리서 오고, 네 딸들은 팔에 안겨 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바라보고 빛날 것이요, 네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부풀어 오를 것이다. 바다의 부가 네게로 가져올 것이요, 민족들의 부가 네게로 올 것이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섬들이 나를 바라보고, 선두에 타르시스의 배들이 있어 멀리서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네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 외국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사야 60장을 더 읽어볼 수 있고, 나머지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바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정경적 맥락에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창조에 대한 그의 원래 의도의 성취입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한 가장 충만한 예언적 표현 중 하나는 이사야 6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은 매우 흥미롭게도 이 땅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취하고 몇 가지 열쇠를 끌어올립니다. 17절부터 유배에서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약속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 후에 볼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창세기의 기록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수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했듯이, 땅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열쇠로 돌아가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 확장되어 이제는 재창조된 전체 우주나 새 창조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전 일은 기억되지 아니하며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나는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울부짖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다른 구절 몇 개를 읽을 것이다.

하지만 17절의 첫 번째 구절을 주목하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유배에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표현하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재창조된 전체 우주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첫 번째 것은 17절에 있는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창조 순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과 1절에 있는데, 저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휘적으로도, 이사야 65장 17 절에서 반복되는 하늘과 땅의 언어는 원래의 창조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

17장 후반부에서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 창조와 유배 상황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과 1장의 원래 창조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사실, 20절을 읽어 보면 조숙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없고, 수명이 다하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백 살에 죽는 사람은 그저 젊은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백 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조기 사망이 없다는 언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언어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다른 곳에서 선지자는 실제로 죽음이 더 이상 없을 때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든, 저는 이사야가 아마도 첫 번째 창조에서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어떻게 역전될 것인지에 관해 매우 시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조기 사망이 없다는 이 언어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의 역전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저자는 더 이상 착취나 불의가 없을 때를 상상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땅의

풍요로움에 대한 언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는 다시 에덴 동산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땅으로 돌아올 때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살거나 심고 먹을 것이다.

나무의 날과 같이, 내 백성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나는 나무와 열매의 언어가 에덴의 언어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에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첫 번째 창조에 이은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에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22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무의 날과 같이, 내 백성의 날도 그러하리라.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은 이사야 65장 22절에서 생명나무의 날과 같이 또는 생명나무로서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의 에덴동산과 분명히 연결되는데, 생명나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날을 예상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 번째 창조에 따른 새로운 우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62장과 66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지속되듯이, 주께서 선언하시되, 너희 이름과 후손도 지속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는 새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땅과 연관시키지 못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본문이지만, 시편에는 메시아가 통치할 날을 예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통치할 때, 그의 통치는 온 지구를 포용하고 덮을 것입니다.

온 땅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종종 왕의 시라고 부르거나 묘사하는 시편 2장 8절에서, 시편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기름부음받은 왕에게 “나에게 구하라 내가 민족을 네 기업으로 삼고 땅 끝까지 네 소유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질그릇 같이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 8절은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가 결국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주어질 때를 예견하고 예견합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여 창조물 전체를 포용해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기름부음받은 자, 시편 2장 8절에서 메시아적 인물로 성취되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주어지고, 그것을 다스릴 자로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 왕이나 메시아적 인물 또는 통치자를 언급하는 또 다른 시편인 시편 89장 27절.

2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세우겠습니다. 20절을 언급하면서,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았노라.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그런 다음 25절에서, 나는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 위에 두리라. 그는 나에게 부르짖으리라,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바위, 나의 구원자, 이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공식을 떠올리게 한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에서 나는 그를 내 맏아들로 세우고 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89편도 다윗의 아들인 기름부음받은 자가 결국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릴 때를 예견하고 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6절, 종종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시편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꽤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시온에서 네 강력한 활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네가 네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할 것이다.

네 군대는 전쟁의 날에 기꺼이 나서서 새벽의 태에서 거룩한 위엄으로 차려입을 것이다. 너는 네 젊음에 대한 만기일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맹세하셨고,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멸하실 것이요.

그는 나라들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쌓고 온 땅의 통치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 것이므로 머리를 들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태어날 메시아 아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요점은 결국 온 땅이 다윗의 통치자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글썄요, 몇 가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제 땅과 창조물의 주제가 왕국과 왕권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로서의 예수라는 주제와 그것이 땅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다룰 때에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이사야 65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시편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상속받을 것은 새 창조물, 즉 온 땅이라는 생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 땅은 미래에 다윗의 통치자의 상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홍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수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땅으로 데려오고,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백성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일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땅으로 데려가려는 의도를 보여주셨을 때, 그는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의 일부였으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원래 창조하고 은혜로운 선물로 준 땅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에 대한 그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처럼 이스라엘은 아담과 이브의 역사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처럼 이스라엘도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또한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땅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됩니다.

그래서 예언적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땅과 땅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다시 한 번 그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그냥 폐기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의도하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 65장과 시편의 일부와 같은 여러 본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 우주를 상속받을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실 곳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심지어 시편 중 일부도 결국 다윗 왕의 유업이 지구, 온 지구가 끝날 때를 예상합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그들이 하나님의 부통령으로서 온 지구를 다스리고 모든 창조물 위에 그의 통치와 영광을 퍼뜨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구약성경, 땅과 창조, 새 창조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다른 텍스트들이 있고, 나는 철저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창조 행위, 즉 물리적 창조를 통해 인간과 창조물에 대한 그의 의도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땅과 창조, 그리고 새로운 창조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대표적 본문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약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계시록, 특히 새 창조에 대한 21장과 22장에 도달할 때까지, 보라 ,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흥미로운 점은 신약에서 토지 언어가 거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땅을 약속하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약 저자들이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르러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까지 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의 언어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땅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땅은 이제 신약에서 사라졌거나 구약에서는 중요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취의 후반, 마지막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땅 언어가 없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지만, 없더라도 땅이 신약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두드러진 역할을 할까요? 또 다른 것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종말론의 긴장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즉, 저는 신약을 읽으면서 땅이 우리가 가는 곳을 약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적 문학에서 발견되는 땅의 약속, 시편에서 상상되는 것,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오심으로써 이미 성취되었으며, 아직 또는 궁극적인 완성을 기대하며 계시록 21장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이미와 아직 둘 다에서 이러한 약속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취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땅은 물리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를 발견함에 따라, 우리는 아마도 그것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이미, 아직은 아닌 계획에 따라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과 그의 백성 안에서 최종 성취를 기대하며 이미 성취되었으며,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에서 발견되는 주된 물리적 성취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는 복음서로 시작해서 창조, 새 창조, 땅이라는 주제가 신약과 복음서, 바울 서신, 다른 신약의 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고, 계시록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조, 새 창조, 땅이라는 주제가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구약의 창조, 땅,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입니다.